

第232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8月1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한국근·현대사고교교과서검정관련보고

審査된案件

- 1. 한국근·현대사고교교과서검정관련보고 ..... 1

(16시15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입법조사관이 방금 보고한 바 와 같이 새천년민주당의 金敬天 위원과 金花中 위원이 사임하시고 宋永吉 위원과 趙在煥 위원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趙在煥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오 셧으니까 인사해 주시지요.

○趙在煥 委員 趙在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리고 지난 번 회의 때 출장 관계로 인사를 나누지 못하신 薛勳 위원님 간단 하게 인사해 주시지요.

○薛勳 委員 薛勳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전통적으로 여야 간에 사이 좋기로 호가 나 있는 위원회인데 앞으로 16대 후 반기 위원회도 과거와 같이 여야 간에 타협하고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감사합니다.

1. 한국근·현대사고교교과서검정관련보고

(16시18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 근 ·현대사고교교과서검정관련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정을 통과한 문 제의 한국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 4종에 대해 도 하신문과 언론매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평 가와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이 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 지 등을 밝혀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와 같은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책도 아울러 강구해 야 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은 그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상주 교육부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상주입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주도적 학습능

력을 제고하고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엇그저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에서 200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내용을 기술하여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교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지시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교과서 개발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경위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만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과서 제작 검정 과정의 대부분이 제가 재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하지만 저는 추후도 여기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어난 일이든 산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든 간에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과서 기술상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영향을 끼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교과서 제작상에 긍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 방향은 1교과 多교과서 원칙에 따라서 가능한 한 검정교과서를 많이 개발하고 또 책임 있는 집필을 위해서 집필자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국사 과목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종전에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국정발행 1교과서로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고등학교 1학년용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고

그다음에 한국 근·현대사를 신설해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의 선택과목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검정으로 발행되었고 여러 개의 교과서로 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개설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에게 당대사 학습을 통하여 역사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또 역사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2·3학년의 2년간에 선택하게 되는 교과목은 종전의 60개 선택 과목에서 79개 선택과목으로 확대되었고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그 중의 하나로서 신설된 것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단일본에서 검정 다교과서 원칙에 따라서 발행이 되었고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국사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정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업무를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처음 도입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정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검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에 근·현대사 전공 역사학자 5명, 고교 역사교사 및 역사교육 전공자 5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전체 검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위원장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검정팀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각 과목별 검정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한국 근·현대사 검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1차 본 심사, 2차 본 심사 두 차례 심사를 하게 되는데 다른 과목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는 교과서 단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 방법은 검정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외부와 통제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9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심사기준은 교육과정, 검정기준, 집필상의 유의점, 준거안에 이것이 합당하나, 안하나에 따라서 A·B·C·D의 등급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수록해야 할 세부 항목이나 기술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 심사는 1차로 연구위원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검정위원회 심사가 두 차례 있었는데 대체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로 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6일에 그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서는 지도서가 없기 때문에 검정을 완료한 것은 지난 5월이지만 다른 교과서가 지도서와 교과서가 같이 있어서 전체로 발표했기 때문에 7월 26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작년 12월에 검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최종 합격 도서 발표가 7월 26일에 되었고 앞으로 직권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시본을 공개해서 주문 집계한 다음 생산 공급해 가지고 내년 첫 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검정교과서 내용은 이미 언론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 대충 검토해 보면 金泳三 정부와 金大中 정부를 비교해서 기술하는 데 있어 두 출판사는 金泳三 정부의 ‘공’과 ‘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아울러 기술되었고 金大中 정부에 대해서도 두 교과서는 긍정, 부정 양 측면을 다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교과서는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양쪽으로 ‘공’과 ‘과’ 양면을 기술한 데 비해 金大中 정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만을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언론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

키게 된 것입니다.

단 여기서 현 정부나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교과서 검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이제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제도상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역사교과서 같은 것을 국정으로 해야지 왜 검정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역사학회나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 단일본으로 하는 것은 확실적인 교육이 되기 때문에 검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근·현대사만을 검정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면이 있습니다. 검정으로 가자는 측면과 역사교과서처럼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교과서는 국정 단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상반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최현대사 부분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검토도 의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뒤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직권으로 수정 지시할 예정인데 그것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완료된 후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수정 보완은 집필자와 발행사 자체 수정과 교육부 직권 수정을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토해야 될 문제는 최현대사의 기술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현 정부까지 할 것이냐, 해방 이후의 史는 안할 것이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100년 동안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가들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대사를 안 가르친다고 하면 해방 이후 남북분단사나 6·25전쟁,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나 경제개발 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책이 저술되는 그 시점의 정부에 대해서는 기술을 안 하는……

○**金貞淑 委員** 이제 보고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委員長 尹榮卓 金 위원, 보고 다 듣고 하시지요.

○金貞淑 委員 아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고쳐 놓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시끄럽게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부총리께서 지금 정답을 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교육부총리로 오셔서 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킵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발각 뒤집어지니까 이런 대책, 저런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진작 하셨어야지요.

○薛勳 委員 보고를 하고 있는데 끝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검정위원 추천 과정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尹榮卓 부총리, 계속하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薛勳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합시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부총리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하지 말고 그냥 끝내라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효율적인 회의가 되겠습니까?

○金貞淑 委員 간단히 하란 말이에요.

○薛勳 委員 어떻게 보고를 하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고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중에 빨리 끝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朴昌達 委員 薛勳 위원, 상대방 위원을 추궁하지 말고 薛勳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이나 하세요.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委員長 尹榮卓 빨리 보고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간단히 하겠습니다.

검정위원 추천 과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씩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기술된 것에 앞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업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교육부에 검정위원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번 교과서의 경우는 작년 10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검정위원 추천을 선정하겠다는 기본 결재를 10월 20일 학교정책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 교육부가 두 군데에 추천 의

의를 했는데 하나는 시·도교육청에 추천 의의를 했고 하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추천 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중순경 교육과정평가원 추천도 들어왔고 시·도교육청 추천도 들어왔는데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들어온 것이 50명,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들어온 것이 12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받은 사람 중 편수 담당자가 학술진흥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신상자료, 연구논문 자료같은 것을 참고해서 3배수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편수 담당자가 30명을 뽑았는데 그때의 편수 담당자가 여기 와 계십니다.

그다음에 검정위원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정위원선정위원회는 40여 개 과목을 모두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이 명단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장 두 분, 교수 두 분 해서 네 분이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20명을 10명으로 다시 줄이는데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정에 관계된 서류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尹榮卓 부총리,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위원의 최종 선정은 학교정책실장이 전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됐습니다.

다음은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교육과정평가원장 김성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정업무 개요와 검정의 주체인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 구성, 추진경과 순입니다.

그간에 저희가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저희가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무난하게 잘 추진해 왔는데 뜻밖에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검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검정업무의 개요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98년 12월 31일 결재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낸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계획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검정업무의 핵심은 뭐냐, 검정 출원된 심사본이 교과용 도서로 적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전문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심의회의가 핵심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심의회가 외부와 차단된 공간 속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은 저희 평가원에서 만든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 두 위원회간의 관계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근·현대사의 검정기준은 저희가 만들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구성도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의해 선정·위촉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선정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10명이 되었고 간사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관련교과 전공의 편수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교육과정평가원이 일체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와 저자가 2,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교과서는 검정에 통과되어야만 교과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정 심사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검정 출원된 심사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배제되는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정위원 위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도 후보를 추천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추천을 합니다.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12명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교육과정평가원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과교육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런 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서 검정위원후보 추천명단에 저희 평가원 박사들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기능과 의결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기능은 교과용도서가 적합하나, 적합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이 기구는 법적 기구이고 독립적인 기구이고 고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무원이 이 기구의 간사로 들어가는 데 간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지켜 보면서 마지막에 요식행위가 제대로 되었는지, 즉 서명날인하고 등급 매기고 도장이 잘 찍혔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고 그것을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의결방법은 검정에 관한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가원을 절대적으로 기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권으로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령에 의해 교과용도서 심사과정에 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은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도 안 되고 여태까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 구성을 교육과정평가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기구인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과정이 공정하고 보안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이것을 만든 것인데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교육인적자원부 결재공문에 보면 ‘검정 기구의 설치 및 구성’ 해 놓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든다, 임무는 검정 신청도서의 적격 여부 심사, 수정·보완 요구사항 작성, 수정·보완해 온 것을 평정, 마지막으로 부적격 판정이 난 것의 사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는 적격 여부를 심판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검정기구로서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구성,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관리위원 약간을 둔다, 임무는 검정업무 관리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는 어느 한 기구가 상위에 올라가서 하위 기구를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고 병렬적 구조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 있는 검정관리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고 독립적 기구인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몇 명이 가느냐, 이번에는 17명이 왔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도서 검증을 하는데 17명이 간 게 아니라 교과용도서심의회가 일정 장소에서 감금된 채 일을 하는데 관리·지원업무를 위해 17명이 간 것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검정 심사본의 접수, 수수료 결정·수납, 심사진행 및 의견접수, 교과용도서심의회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 지시사항 전달,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심의회 심사결과를 단순 집계해서 적격본과 부적격본을 확인한 후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것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경과는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해서 간사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관리위원회는 그 심의가 원만하고 공정하고 보완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관리지원업무를 여태까지 원만하게 해 왔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작업의 흐름도가 있습니다마는 오른쪽에 보면 교과용도서심의회는 교육부에서 구성·위촉한 위원회가 그대로 오고 우리는 옆에서 지원·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차 심사 진행'이라고 해서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정·보완 이런 지시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출판사에 보내고 출판사에서 수정·보완해 오면 그것을 수합해서 다시 2차 심사에 드리고 그러면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자료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李在禎 委員** 평가원장은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문제지적을 하는 것입니까? 끝났으면 들어가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런데 이 4페이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위원장이고 지배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가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아니고 검인정제도를 추진하는 한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문부과학성 속에 198명이라는 편수국에서 교과서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서 검정을 위한 것을 전부 조사하고 연구해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검정위원회에 넣어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와 출판사의 첨예한 이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권력을 가진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옛날 교육부에 있던 편수국을 살리고 편수직렬을 살려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반드시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다시 새로 보임된 宋永吉 위원님 인사해 주세요.

○**宋永吉 委員** 교육위원회에 보임되어 온 宋永吉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玄勝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 명단하고, 집필자명단은 여기 있으니까 됐고 1차 심사와 2차 심사 시의 회의록하고 수정·보완요구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명단은 드릴 수 있는데 회의록은 그것을 관리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정·보완요구서는 지금 해가지고……

○李在五 委員 수정·보완지시를 했다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직 안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1차, 2차 심사 끝나고 최종심사할 때 수정·보완 지시한 것이 없습니까? 문제된 것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아니라 1차 심사와 2차 심사가 끝났을 때 이런 내용을 수정하라는지 보완하라고 한 요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평가원에 그것이 있나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교육부에서 결정하시면 저희는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탁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李在五 委員 교육부하고 평가원하고 서로 자꾸 미룰 일이 아니고 갖고 있는 데에서 내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제출하라는데 결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출하려고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勝一 委員 고교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여야, 언론,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에서까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균형을 잃은 교과서도 있고 비교적 균형을 취한 교과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玄勝一 委員 답변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하나의 동요에 불과한 것이다, 지나친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게는 안 봅니다. 이런 기회에 교과서 자체의 공정성 문제를 따지고 검정제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지적되는 편파성 문제는 좀 과장된 문제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玄勝一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부총리님의 사적인 견해를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번에 통과된 4개 교과서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구절에 보면 “이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평가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시기상조 아닐까요? 6·15 공동선언이 남북 평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크게 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안보태세에 이상이 오고 북한의 잘못된 의도 또는 기만적인 정책에 의해서 평화가 위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역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 내용에 대해서 찬동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묻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하는 사람도 있고 합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한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옳으나 그르냐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예,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玄勝一 委員 그렇다면 이것을 역사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응 볼 수 있는 것이예요. 임기 중인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의 치적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공산당 같은 일당독재 정권에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역사기술은 없는 것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한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주십시오.

자화자찬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학자들이 기술한 것입니다. 물론 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그 동기야 어떻든 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정부의 홍보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玄勝一 委員** 그러면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정절차를 거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이것을 지나치게 문제시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현재 기술되어 있는 것보다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이 교과서가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것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玄勝一 委員**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신다면 검정과정이나 검정위원 선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선발과정을 쟁겨 봤는데 사실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절차를 죽 살펴보고 그 서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시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玄勝一 委員**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玄勝一 委員** 장관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성을 강조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높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성을 잘못 강조하면 오히려 무책임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관이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면 그 밑에 부서의 사람들은 책임이 면탈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검정과정을 살펴 봐어도 현재로는 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하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자로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아직 총체적으로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하위자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봅니다.

○**玄勝一 委員** 이것은 정부 공직자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적절한 선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장관이 다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장관이 모든 덤터기를 쓰고 책임을 진다고 할 때 그 책무성은 오히려 결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李在五 위원께서 명단공개를 요구했는데 명단을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조건을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검정위원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설득해서 했는데……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 검정위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합격과 불합격 시비에 검정위원들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괴로움을 안 끼치겠다는 뜻에서 이제까지 안 드렸는데 제가 드리더라도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언론에는 보도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玄勝一 委員** 지금 장관께서 ‘그 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검정 전이나 검정과정까지는 외압을 피하고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해야 하지만, 검정이 끝난 후까지도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직 검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합격된 사람들이 9월 말까지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명단을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검정위원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玄勝一 委員**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검정위원들이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검정을 해야지, 그것을 끝까지 숨긴다는 것은 이야



기가 되지 않고 검정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검정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관과 평가원장 두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장관께서는 본인이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음으로써 책임을 훼손하는 면을 느낄 수 있고 평가원장께서는 책임을 너무 회피함으로써 그것도 책임이 결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질의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책임관계를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탈락한 5권의 교과서를 포함해서 9종의 교과서를 재검정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즉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것은 재검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5권이면 5권으로 그 수를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다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권은 이번 9월까지 재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玄勝一 委員 재신청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위원은 임기가 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검정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玄勝一 委員 그 당해기간 동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朴昌達 委員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방금 부총리께서 최종 검정위원 명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종 검정위원들이 각 출판사별 교과서에 대해 채점한 것이 있지요? 그 채점한 내용을 오늘 교육위원 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교육과정평가원이 판단할 사항인데 채점내용은 드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채점자는 A, B, C, D 이렇게 익명으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朴昌達 委員 이 사람들 문제는 최대한…… 괜찮은데 자료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李在五 委員 부총리! 여기가 국회 교육위원회입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걱정하시는 이

상으로 우리가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尹榮卓 宋永吉 위원님 말씀하세요.

○宋永吉 委員 宋永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공 때부터 지금까지의 교과서 시스템 하에서 당해 정권 하에서 역사교과서에 그 시대의 근·현대사가 기술된 적이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그 통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제기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동안 모든 정권 하에서…… 저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4공 정권 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10월유신을 미화하고 아예 노래를 부르고 살았습니다. 5공 정권 하에서는 사회정화조치에 대한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그때에도 그런 것들이 문제된 적이 있는지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 데 대해서 언론이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당한 적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李美卿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委員 李美卿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玄勝一 위원님께서 부총리께 “지금 제기되고 있는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다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美卿 委員 저는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모두 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나 현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치적을 미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정권이 고교교과서까지 동원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를 덮고 광적으로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에 아연실색한다” 이것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대변인은 “金大中 정권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

니다. 그리고 도하 각 언론들이 “임기 중 정권 미화” 또 “역사교과서를 편향적으로 기술해서……” “신용비어천가” “책임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현 정부 치적위주의 서술을 하고 있다”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치적홍보 조급증에 역사가 사용된다” 이런 기사들이 한 면 가득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객관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李美卿 委員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언론 특히 신문 쪽에서 ‘신용비어천가’ 치적홍보 조급증이다’ 등의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잇따라 그와같은 논조로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서까지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맞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현 정부 타도에 앞장서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 정부나 기타 외부세력이 교과서를 왜곡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는 점은 한 군데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수차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 중에서 2개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하고 2개는 조금 균형이 덜 잡힌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문제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선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5개 교과서가 탈락되고 4개가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 4개 중에서 2개의 출판사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출판사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채택된 중에서 받은 넣고 받은 안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넣은 것도 소위 게이트니 부정부패 문제니 이런 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빠진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이것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집필자라면, 아마 지금쯤 자기한테 쓰라고 한다면 ‘썼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역사학자, 집필자, 지식인들을 그렇게 한마디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성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몰고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인 풍토라든지 이런 것이 차분하게……

과거부터도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 와서도 혹시 그런 요소가 드러난다면 잘못되었지요. 더 민주화되었고 시대도 변했고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도 훨씬 성장했는데 신용비어천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것도 정부가 작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혹시 그러한 가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변한 만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집필자들의 양식도 믿습니다. 사실 김정위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 집필자들입니다. 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의 양식을 믿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지요.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면 현 정부는 훨씬 더 지나간 정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같이 비교해서 나와야 되는데 한 곳에는 또 빠져 있다, 한 1년 반 내지 2년 동안의 공과가 또 빠져 있게 된다 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 정부의 역사적 평가나 기술이 역사교과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점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것을 빼자 하는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宋永吉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되어 왔는가, 이전에 어떻게 되어 왔는지 조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87년 이후에, 상당히 민주화되었던 그 시절에 나왔던 90년대 교과서에도 여전히 5·16쿠데타를 5·16혁명이라고 써 놓고 4·19를 의거라고 쓰기도 했고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고…… 그 당시는 광주 청문회도 열

리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디도 없고…… 이런 것이 그 당시 교과서의 풍토였어요. 지금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도 지나간 정부니까 비판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잘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상세하게 4종의 교과서들이 다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2개 교과서가 金大中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마디도 안 썼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인데 저는 그 난리가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 교과서를 집필하신 분들의 얘기들을 사실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조사가 오래 계속된다면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자기들의 소신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이것을 집필한 그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증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 정권의 내용을 교과서에 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합의로 좀 신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문가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한에 있어서는 결국 이런 활가활부의 문제가 있을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현 정부의 것은 신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142명입니다.

○李美卿 委員 142명이나 되는데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재 연구개발, 교과서 검정……

○李美卿 委員 교과서 검정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위탁을 받았으니까요.

○李美卿 委員 그러니까 교과서 검정을 위탁받아서 142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이러한 교과서라든지 또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美卿 委員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 검정위원들이 검정할 때 그냥 뒷바라지하고 물 떠주고 돈 받고 이런 일만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그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李美卿 委員 무슨 권한이 안 주어져 있다는 것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李美卿 委員 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정위원회가 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美卿 委員 검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李美卿 委員 검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을 할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추천하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저희가 추천합니다.

○李美卿 委員 물론 교육청에서도 추천하고 또 아까 보니까 나중에 2차에서는 편수관이 추천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두 배수로 집약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래서 아까 저는 평가원 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모든 과정을 혹시 다 책임지게 될까봐 너무 미리 발뺌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지요? 이제는 민간인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美卿 委員 교육인적자원부에 계시다가 가서 너무…… 지금 물으면 묻는 대로 대답하면 됩니

다. 그런데 그렇게 발뺌하는 모습을 너무 보였다는 느낌은 좋지 않았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金貞淑 한나라당 위원님 주장에 “교과서검정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일방 선정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주무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의 추천자는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평가원에서 그런 얘기를 金貞淑 위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러면 이 기사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평가원 측이 자료를 제출했는가” 했더니 “평가원 고위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교과내용의 집필은 물론 심의위원 선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평가원의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전혀 金貞淑 위원님하고……

○李美卿 委員 그러면 金貞淑 위원하고 평가원 쪽에서 통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누가 했습니까?

○金貞淑 委員 없어요.

○李美卿 委員 없어요?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 정도가 통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사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평가원에서 추천한 사람들 중에 내가 알기로는 한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을 추천했는데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름 다 갖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명밖에 안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불만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美卿 委員 그것 때문에 지금 평가검정위원회가 부당하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압력으로 되었

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어쨌든 일정하게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까 지적하였던 제도상의 미비점은 있지만 정부가 부정하게 무슨 압력을 넣어서 심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흔적을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일정 장소에 감금해서 모시고 휴대폰도 들어갈 때 다 영치를 하고 일체 외부와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모 신문에 보니까 마치 탈락된 5종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더 담고 있어서 탈락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격된 교과서가 합격된 교과서보다도 균형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실무자의 보고가 있었고……

○李美卿 委員 잠깐만요. 그것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탈락된 교과서가 균형적으로 서술되었다고요? 균형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薛勳 委員 탈락된 교과서가 균형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러니까 불합격된 교과서가 대부분 金泳三 정부를 비판적으로, 金大中 정부를 공적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정한다면 오히려 그 쪽이 선정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여기에서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언론에 좀 거꾸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제가 파악하기로는 탈락된 교과서가 더 밸런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더 맞게 되어 있는데 탈락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李美卿 委員 제 질의 중이니까 金貞淑 위원은 나서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탈락된 교과서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공적 중심으로 더 했습니다.

○李美卿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도 썩 잘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오보인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응을 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오늘 기자실에 가서 해명자료를 돌렸습니다.

○李美卿 委員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론이 지금 너무 과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하거나 또는 더 설명해야 될 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祐呂 委員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론과 현실론을 구별하면서 또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재로 채택된 실록에 보면 왕조시대 때도 이미 왕에 관한, 정치에 관한 기술을 실록에 기재할 때에는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왕의 사후에 편찬이 되고 또 왕은 그것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엄중하게 조치를 해 와서 조선 500년을 유지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읽고 배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답안을 쓰면 점수가 나오는 정답이 되고 그 내용대로 쓰지 않을 때에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오답이 되는 객관적인 진실, 그리고 충분히 평가가 되고 검증이 된 평가내용만을 기술하는 역사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찬성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찬성합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검정기준 9항에 보면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 또 10항에 보면 특정한 정당, 인물, 종교 등을 비방·왜곡·옹호하는 내용은 배제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집필상의 유의사항을 보면 교과내용에는 역사학계

에서 정설화된 것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를 이용해서 내용을 소개해야 된다,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거나 이념적인 문제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역사기술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미 엄정한 중립으로 정권과는 구별된다는 원칙을 정하시고 이것을 주지시키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렇다면 지금 검인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출간한 국사교과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전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盧泰愚 정부 역시 부정과 비리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추상같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도 “그러나 국제경제여건 악화로, 외환부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해서는 3페이지에 걸쳐서 긍정적 평가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까 사무실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黃祐呂 委員 중학교 교과서도 제가 다시 지적하지 않습시다만 같은 기술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인정의 기준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교과서가 이 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 교과서를 쓴 것이 아마 작년, 제작년쯤 될 것입니다. 금년에 사용 중인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黃祐呂 委員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편파적인 것이 있다면 조금 부정적인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측면이 있다……

○黃祐呂 委員 단답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분 내에 제가 한 열 가지 정도는 질의해야 되

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의 기술 기준에 대해서 명백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시면서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만든 것이나 검인정하는 것이나 대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이라고 할 때 이것은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의 역사교과서 기술방침에 따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아닙니다. 검정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한 국정교과서도 독자적으로 제3자가 한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실 그 국정교과서는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서 한 것입니다.

○黃祐呂 委員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가 국정으로 하는 것도 위탁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관여할 수 없다라기보다도 사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우리 정부기관으로서 역사 기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 것입니다.

○黃祐呂 委員 글썄요, 오늘 제가 어처구니없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교육평가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라고 이야기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이것 다 위탁한 것이라 위탁기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취지는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닙니다. 저는 위탁했다라도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은……

○黃祐呂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사기준이나 집필상의 유의점을 엄정하게 집행관리만 한다면 또 500년 왕조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역사기록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준에 따랐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와서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인데 그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심사과정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철저한 심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지금 평가원의 간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명 보내시고 계시지요? 검정위원회에……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위원회에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관이 간사로 참여를 합니다.

○黃祐呂 委員 그래서 그 사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주지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합니까, 아니면 물 떠오는 일만 하고 심부름만 하고 그런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잠깐만요. 이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간사의 임무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아니, 그것만 단답하세요. 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말씀대로 물 떠다 주고 문잠가 주고 전화 끊어주고 이런 일만 합니까, 아니면 검정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주지시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임무까지 합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敎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간사는 행정지원을 합니다. 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잘 진행 되도록 도와드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검정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黃祐呂 委員 그러면 사후에만 관여를 한다면 이 기준은 뭇하러 만듭니까? 이 기준은 누가 주지시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기준은 집필자부터 하고 있습니다. 집필자들은 그것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러니까 사리상 이 기준을 주지시키고 그것에 맞도록 수시로, 물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법의 권한에 따라서 이 검정기준을 주지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임무이고 ‘이 법 안에서 일 하십시오’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간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제가 간사를 한 사람한테 물어 보았더니 이제까지는 검정하는 근처에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黃祐呂 委員 예전에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새가 와서 곡식을 쪼아 먹나 잘 봐라”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잘 쪼아 먹는 것을 보아서 그 새들이 곡식을 다 먹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 와서 “너, 뭐 했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새들이 곡식을 쪼아 먹나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나 지금 두 분 대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간사를 두고 또 거기에 원장이 계시고 또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핵심 모든 간부들이 계시면 이것을 주지시키고 관철해 주셔야지요. 저는 바로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규정은 규정대로 놓고 일은 일대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 한 가지 물겠습니다.

우리한테 내주신 도표에 의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차 심사 수정·보완 지시, 2차 심사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원장 말씀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6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교과용도서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낸 자료 13면에 보면 1차 심사 수정·보완 지시, 2차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전부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黃祐呂 委員** 그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닙니다.

○**黃祐呂 委員**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구성한 교과용도서심의회가 그대로……

○**黃祐呂 委員**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이 도표는 잘못된 것이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심사 수정·보완 지시까지 할 수 있고 이것이 출판사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법규에 근거가 있든지 관행상 하든지 간에 이런 행사 과정이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는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사권한이 없습니다.

○**黃祐呂 委員**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次官 金信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고서 6페이지에 똑같은 표가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하여간 지난번에 대학입시 수능 시험 때도 원장님께서 전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셨는데 도대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많은 세금을 쓰면서 몇 하러 존재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이번에 수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주어서 32명의 상시인력이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이번에 국정교과서나 검·인정교과서가 과거에 어쨌든 간에 또 외국에 어떠한 예가 있든 간에 현행법규와 현행절차를 보면 좋은 기준과 여러 가지 엄격한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절차가 세밀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책임 하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어떤 위원을 말씀하시는지요, 검정위원이요?

○**黃祐呂 委員** 예.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다.

○**黃祐呂 委員** 아까 위원 추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위원 후보자 추천인데 우리는 그 관련 교과를 전공한 대학교수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 분들에게 이러한 배경이나…… 역사기술에 대한 냉엄한 자세나 인격적인 면도 검토합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는 교과 교육 학자들과 일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분을 추천합니다.

○**黃祐呂 委員** 지금 현 장관은, 이것이 뭐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 정권의 핵심에서, 비서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관여하는 여러 가지 기구에서 이러한 검정이나 국정교과서를 쓸 때에, 만약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쓸 때 비판적으로 쓰겠습니까, 아니면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출판사와 같

은 사기업에서 현 정권에 대한 기술을 하도록 할 때에 현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검정책임자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사 기술이 굽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요새 학자들이 집필할 때 그런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정 합격을 받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치를 보고 어느 정부는 좋게 쓰고 어느 정부는 나쁘게 쓰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출판사 사장님들께 여쭙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조선시대의 그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훈련을 받은 선비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러한 엄격한 역사기술의 원칙이 세워졌겠습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한 분 한 분의 인격은 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장치와 엄격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엄정한 감사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만들고 또 많은 검정절차와 수정절차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지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때에는 절차와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사의 역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할, 편수관들의 역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또 그 기준도 절차에 따라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알겠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특별히 역사교과서 기술의 시기적 설정과 객관적 사료의 취합과정과 평가에 대한 문제를 적어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명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발표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회의 생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것은 기술하지 않는 원칙을 차체에 세우고, 또 기존 정권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중요한 것만 기술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어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역사 평가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뀔 위험이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들에게 대한 책임 추궁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薛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薛勳 委員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 문제를 가지고 긴급하게 상임위를 개최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된 것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에 따라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솔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라는 언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때로 잘못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각도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 야당과 일부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정권홍보 차원에서 기획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 4개 출판사가 발간을 할 것이고 또 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을 하고 난 다음 金大中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놓고 문제를 들여다 보면 정확히 문제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별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얘기했고 부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해 왔고 집필진이 학자들 또는 교사들이며 이것을 심의했던 분들도 학자적 양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검정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내용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청한 9개 교과서 중 탈락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개 교과서 전체를 다 놓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주로 金大中 정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교과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과서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체 기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학습목표와 교과과정에 충실성이 있는가, 교수학습방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 등등 먼저 교육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金大中 정부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기술했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교과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를 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보해서 金大中 정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탈락된 쪽에서 金大中 정부에 대해 더 좋은 점수를 주고 평가를 잘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확히 지적해서 언론 쪽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오늘 보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기자들한테 배포했습니다.

○薛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정권 홍보로 기획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기획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필한 것이 아니라 학자와 교사들이 했습니다. 또 이것을 심의한 분들도 학자나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획했다고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기획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학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 또 심의하는 학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지적 풍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이것을 기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느 보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의 야심작’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심대하게 생각하시고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일 진짜 이렇게 했다면 전부 물러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야당에서는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교과서는 민간출판사가 기획하고 출판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홍보를 민간출판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상식에 벗어납니다. 언론에서 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홍보라고 주장하는 측, 그 측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양심이 있으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金大中 정부에 대한 공과를 제대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팩트와 역사가의 필링이 합쳐져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이 있었다 해서 그것이 다 역사는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변한다고 그러합니다. 역사가의 판단에 의해, 역사를 보는 시각에 의해 역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대의 부분, 이 정부에 대한 부분까지 국사교과서에 넣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물론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다 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우리가 알았다더라면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 정부가 하도록 해야 한다, 넣으면 안 된다고 했어야 마땅한바 그렇게 안 했기 때문

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음 정부에서 우리가 잘 했으면 잘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 했다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잘 했다고 하는 것도 별로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교과서에 실린 시점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비리가 터져나온 것은 이 교과서를 쓰기 이후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학자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기획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양심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라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그 정부 시점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사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근·현대사를 다루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 교과서는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金大中 정부의 ‘과’ 부분은 2001년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학자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 자체, 비리 자체는 2000년부터 터졌는지 1999년부터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과서를 쓸 때, 특히 국사교과서를 쓸 때는 당대의 정권 부분은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건을 크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부의 힘이 의도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하고 검정하는 데 작용한 증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앞으로 교과서는 그 당시의 정권에 관한 것은 안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교과서의 기술시기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薛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貞淑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보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점점 더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지려고 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질의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파동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현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서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는 다 빼버리고 ‘공’만 서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도 아직 평가가 덜 끝났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인데 중학교에서 쓰고 있는 국정교과서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도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에 현 정부의 실적을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데 역사를 진행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는데 제가 엇그제 회의 때 질의한 대한교과서, 또 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그 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내용도 문제점이 몇 군데 있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이 굉장히 흥분하셨는데 국회 차원의 역사왜곡진상조사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 정부의 실적을 넣고 있다,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과’를 많이 강조해서 넣고 현 정부의 것은 ‘공’만 넣고 있다,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조급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정을 하는 절차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검정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낸 보고서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다 하고 자기들은 뒷심부름만 했지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한 정부 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보고서 4페이지를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서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자기들은 내용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시시한 일에 수십 명이 붙어 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옥상옥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국고 낭비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전에는 교과서 검정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 이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했습니다.

○**金貞淑 委員** 검정업무를 위탁하려면 100% 다 위탁해야지 검정위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선발하고…… 집필하는 회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집필하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을 하기 위해 신청을 받으면……

○**金貞淑 委員** 그 신청을 누가 받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신청은 평가원에서 받는 것이지요.

참고로 검정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정위원의 경우에는……

○**金貞淑 委員** 실장님, 잠깐만요. 사유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누가 책임을 지고 검정위원을 선정했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검정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정합니다.

○**金貞淑 委員** 평가원장에게 다 위탁해 놓고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검정위원과 집필자예요.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위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검정위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이유가…… 평가원장의 책임하에 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정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대학교수도 있고, 교육청의 장학사도 있고, 고등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검정업무를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평가원장이 검정위원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교육인적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金貞淑 委員** 이 검정위원들은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가원장, 이 책을 심사해 달라고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2001년 12월 3일입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심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교육인적부장관이 누구였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 전임자인 韓完相 장관이었습니다.

○**金貞淑 委員** 평가원장에게 묻겠습니다.

귀 원에서 낸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의 구성” 해 가지고 임무가 “검정심사본 접수,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검정 심사 진행 및 의견 접수, 교과용도서심의회 결정에 따른 수정·보완 지시사항 전달,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에 다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동안에 하나도 안 했다고 했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하나도 안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씀은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金貞淑 委員** 자, 들어 보세요. 이 사건이 나오자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또 중간에 이 책을 쓴 회사, 학자 등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평가원은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행정적인 뒷바라지만 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그렇습니다. 법령상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金貞淑 委員** 여기 보고서에 다 하개꿈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4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귀 원에서 낸 보고서예요.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의견도 접수하게 되어 있고 수정·보완 지시사항도 다…… 아, 전달이군요. 이렇게 내용이 전혀 관여할 수 없게 해 놓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교육부는 뭐를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옥상옥으로 이런 기구를 또 만들어 놓아요? 혼동하기 딱 좋아요. 여기 우리 당 위원님들 다 혼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냐, 보니까 교과용도서심의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

고 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교과용도서검정관리위원회회를 하나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내용적으로 하나도 티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허울뿐인 권한을 평가원에 떠넘겨놓고 일이 잘못 돌아가니까 다 평가원에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평가원은 자기 상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위원님, 저희는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같으면 내 책임하에 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받을 때는 이상해요. 위탁을 도로 가져 와야 할 것 같습니다.

○金貞淑 委員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라면 교육과정평가원은 없어져야 되는 기관입니다. 따로 돈 들이면서 뭐 하러 있습니까?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는 교육개발원으로 보내고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편수국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즉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교과서를 검정으로 돌렸습니다. 제 의견은 검정으로 돌리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에 떠넘기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책임회피 하는데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양식에 맡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특히 역사관은 여러 사람의 다각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아까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최종책임은 부총리가 지시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金貞淑 委員 그래서 이 책임을 앞으로 어떻게

지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임명권자가 책임지는 만큼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든 상위자든 이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金貞淑 委員 그러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0% 동감입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부총리가 계셔서 저는 든든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사교과서사건처럼 지금 까지 모든 교육정책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뒤수습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미리 알아서 막고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런데 이것을 평가원에 위탁해서 결과를 보고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아니, 여기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세히 합격, 불합격, 동그라미, 세모해서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의혹이 안 풀리는 것이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안 했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국회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과정에 마치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 위임위탁이 되어 있지만 여기 공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서 두 가지 기구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교과용도서심의회고 또 하나는 검정관리위원회입니다.

○金貞淑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민주당의 위원님들 한두 분이 신문에 뭐가 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는 약간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말한 것을

잘못 듣고 오보가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고 나서 평가원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기자하고 전화하는 과정에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제가 한 얘기도 있고 또 조금 아닌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런데 내가 자료요구한 것 왜 빨리 안 가져 와요? 회의록하고 1차, 2차 심사한 것하고 채점표하고 합격, 불합격 쓴 것하고 수정·보완요구서를 질의하기 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 오고 있습니다.

○金貞淑 委員 저도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명단을 주셨는데 그 명단을 그렇게 이름만 써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분이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를 한다든가 전교조에 들어 있다든가 이런 내용까지 이력을 넣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永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 委員 宋永吉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데 책임진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무슨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히딩크 축구에서 배웠듯이 동네축구를 해서 안 됩니다. 자기 포지션을 정확히 지키고, 불이 움직인다고 자기 포지션을 이탈해서 움직이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1면 톱을 장식해서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병역비리 은폐와 관련해서 김대업 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지검에서 접수되느냐 마느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1면에는 아예 실지도 않았고 사회면에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비리사건과의 균형상으로 도저히 편집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현 정부가 검정교과서 통해서 만든 내용이 무슨 대단한 왜곡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의 치적에 우상, 개인숭배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지금까지 5·6공 당시 당대의 정부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내용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教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宋永吉 委員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 4, 5, 6공을 지나면서 모든 공화국 때의 역사교과서가 당대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1982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인데 여기에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고하게 부각시킬 제반 외교적 정책을 강력히 펴 나가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은 민족 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우리 민족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세계사에 펼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980년 광주시민을 피로 학살하고 들어선 그 정권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도 아닙니다. 광주시민 2000여 명을 학살하고 들어선 그 정권 82년도에도 이렇게 화려한 기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와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지만…… 기성세대 언론이나 교수나 국회의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82년도뿐만 아닙니다. 90년대 盧泰愚 정권 하에서도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개최하여 국위를 높이 선양하였다. 올림픽 이후 북방정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동유럽의 공산국가들과 긴밀하게 교류하게 되었고 통일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6공화국의 과오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YS 문민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를 보겠습니다. 96년도 金泳三 정부 때의 교과서

입니다. 여기 표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金泳三 정부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건설을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또 사회의 누적된 모순을 제거하면서 민주화와 세계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오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 부패 사실도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재선, 3선 되시는 분들은 이 시대, 이 신한국당 정권하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金泳三 정부 시절의 교과서에 과오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黃祐呂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 선조들의 역사기록의 엄정성을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 의원 모두가 공감하듯이 그리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께서도 공감했듯이 당대의 역사적 사실을 당대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조선시대처럼 엄격한 사료청이 설치되어서 왕도 그 기록을 볼 수가 없고, 왕이 고치라고 그러면 고치라는 말까지 기재할 정도로 사관으로서 철저한 기강이 서 있는 그러한 구조가 담보된다면 그 당대에도 기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정조치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된 4종의 교과서도 그 기초를 보니까 2개의 교과서는 공과를 함께 평가해 놓았는데 2개의 교과서만 과를 지적하지 않고 6·15 공동선언이나 노벨평화상 수상과 같은 공만 기술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 金大中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없는 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宋永吉 委員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에 있어서 당대의 역사적 공과를 당대에서 기술한 것은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 정권차원에서 누구인가가 어떤 요청을 해 가지고 대외적인 압력을 받아서 이런 것을 기술했는가? 그런데 그것을 기술할 만큼의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러한 이유나 동기가 찾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검정위원의 명단을 보아도 서울대, 연대, 한양대, 충북대, 동국대…… 혹시라도 전남대가 나왔으면 또 지역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마는 전부 서울대, 한양대, 충북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오시고 교육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 또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 아닙니까? 교사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이 자기는 관여하지 않고 물만 떠주는, 심부름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金貞淑 위원님 말씀대로 그곳은 왜 예산을 들여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존재 의의가 뭐가 있습니까? 없애 버려야지요. 평가원이 평가는 안 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물 떠다 주는 일만 했으면 없애 버려야지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기구 자체에 대한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宋永吉 委員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3, 4, 5, 6공 때에 비해서 이 정부에서 특별히 과도하게 현 정부의 치적을 과장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지금까지 국정교과서에서는 당대 정부의 치적은 늘 긍정적으로 써 왔습니다. 오히려 현 정권에서 공과가 함께 기술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宋永吉 委員 3, 4, 5, 6공 모두가 당대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술해 왔던 것은 인정된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면이 있으나 이것은 4개 교과서 중에 2개만 그랬을 뿐이고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한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 맡겨서 검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정부의 관여가 전혀 없이 현직 교사들이, 직접 교육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한 사안이고 이것도 정부가 쓴 것이 아니고, 정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쓴 것도 아니고, 저자와 출판사들이 자신의 사관을 통해서 작성하고 저술한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교과서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나 친일분자들의 누락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서 후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에 동경을 한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후소사 교과서에서 정신대 문제가 왜 제기되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정신대에 대한 역사적 기술을 누락한 데에서 생겼습니다.

○宋永吉 委員 ‘정신대가 공창제도다 아니면 ‘상업적으로 매매춘을 했다’고 왜곡해서 기술한 것도 아니고 단지 누락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교과서에는 있고 중학교교과서에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까 보아 누락시켰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변명입니다. 그런 누락을 가지고도 우리 모든 국민이 분노했는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는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확실히 기억은 못 하지만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永吉 委員 간단하게, 한 줄도 안 됩니다. “조선시대에 여성들도 정신대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했다” 이것입니다. 숫자도 없어요. 우리의 교과서가 우리의 부녀자 조상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끌려가서 ‘데이신파이’라는 미명하에 성적 노리개감이 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서 어떻게 일본정부에게 그렇게 떠들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야 됩니다.

6.15 공동성명이 남북화해에 기여했지 그러면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평가가 보완돼야 할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쓴 것이 무슨 정권 치장이라고 떠들어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내용 자체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 정부가 자신의 역사 교과서에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장관께서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 정권에서 과거의 정권에 비해서 특별나게 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우리 국회가 반성해야 할 것은 3선, 4선, 재선 의원이신 분들은 모두 그때에도 의원으로 계셨지만……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간사위원들

께 지금까지 질문을 해 보니까 13대, 14대, 15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역대 정권이 왜 당대의 역사교과서에 자기 치적만 쓰고 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국민의 정부에서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균형 감각이 상실된 이런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아무튼 정치적인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별도로 과장이 없었고 관행대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신 것이고,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검정과 관련해서 金貞淑 위원님이나 야당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李在五 위원님께서도 회의록을 보자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있어서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관여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검정위원들이 객관적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리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차제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합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거의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宋永吉 委員 성격이 무엇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국무총리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입니다.

○宋永吉 委員 그런데 평가원장은 왜 이렇게 견해가 다르고, 평가원이 평가는 안하고 물 떠다 주는 일만 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원을 왜 존속시키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역사교과서 말이 나온 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문제가 우리나라의 고대사의 문제, 그리고 삼국시대라든지, 잃어버린 발해의 역사라든지, 그리고 일제시대 독립투쟁의 역사라든지, 부끄러운 역사이기는 하지만 친일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충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라는 것이 그동안 민족해방투쟁적인 그러한 민족사관에 의해서 기술되지 않고 오로지 조선사편수회의 후손들이 일본시대의 실

증사학에 의해서…… 특히 현대사에서는 우리 역사가 격동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고, 남북이 화해되고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극단적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또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오기 때문에 못 낫든 잘 낫든 다 우리 부모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어 안고 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풍부한 사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중국적으로 각 교사와 학생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보다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만 해도 검증만 하고 선택권은 전부 각 지방, 현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검증제도 자체도 폐지시키자고 하는 것이 현재 일본 시민단체의 요구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일본이 더 발전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역사가 국민적 시각, 옛날의 그 전체주의적 시각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단지 나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대사 부분과 삼국시대 부분이나 독립운동사, 친일의 역사 같은 것이 보강이 되어서 우리 역사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항상 친일적이고 친미적이고 옛날의 친 원나라·명나라·청나라 외세의존적인 그런 사관이 아니라 자주적인 사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앞으로 남북통일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우리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셨으니까 보다 보강을 하셔서 잘 하면 될 것 같고 이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언론이 과도하게 했다는지…… 마치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여한 것처럼 하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고, 검증위원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자기들은 허수아비고 마치 제3자가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명예를 가지고 사는 교사님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정정보도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정정보도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宋永吉 委員 이것은 반드시 하시라는 말입니다.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훼손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약한 것이 반론권 아닙니까? 언론사만 자기 마음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독자도 엑세스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기관도 여론몰이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비례의 원칙상 과도하게 된 부분은……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동안에 언론계에 해명도 했고 요청도 했고 방문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宋永吉 委員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우선 부총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근대를 어디까지로 보고 현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갑오경장까지를 근대로 보느냐, 8·15 이전까지를 근대로 보느냐? 또 8·15 이후 4·19까지를 현대로 보느냐, 아니며 최현대사라고 해서 최근을 다루느냐, 이런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적어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근·현대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당대정권의 공과를 임기 중에, 잘 했든 못 했든 그것을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의 임기 중에 그 정권의 치적이나 공과를 교과서에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도 아까 밝혔듯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로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다음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이



번에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탈락한 것을 포함해 9종 전부 재심사를 하고 심사위원 10명도 전원 교체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일종의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격한 교과서를 낸 출판사나 저작자들한테는 합격된 것을……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한 것을 며칠 있다가 불합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李在五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론에 나온 것 몇 가지를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오히려 공정하게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31일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5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법문사, 지학사, 디딤돌 등 3개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교과서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교과서 검정을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 결여 때문이라고 출판사에 통보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金泳三 정권과 金大中 정권을 균형 있게 기술한 것이 오히려 탈락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락이유를 교육과정평가원이 ‘이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탈락했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이 5종을 검토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자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불합격된 것이 金泳三 정부를 비판적으로, 金大中 정부를 공격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렇게 나와 있어서 보도가 대단히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 보도가 잘못되었다고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보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요.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사 중 법문사의 경우에……

○李在五 委員 좋습니다. 더 봅시다.

“수룩사진 선정에 있어서도 분석대상이 된 3종의 불합격 교과서는 金大中 대통령 취임식 장면 등 가치중립적 사진을 주로 게재했고 반면에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검정통과 교과서들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진,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대비시키는 등 편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것도 보도가 잘못되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그 것이……

○李在五 委員 부총리!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왜 그러십니까?

○李在五 委員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교과서의 사진이 金泳三 정권도 金泳三 대통령 취임사진을 싣고 金大中 정권도 金大中 대통령 취임사진을 싣고 이러면 형평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金泳三 정권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진을 싣고 金大中 정권은 남북회담, 정상회담 업적사진을 싣고……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이 있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보라는 말입니까?

(李在禎 간사, 尹榮卓 위원장과 사회교대)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못 보았다고 미리 전체를 드렸습시다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부적격, 합격 할 때에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최현대사만 가지고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李在五 委員 부총리님! 제가 교과서 전체가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말하는 것이지 이 교과서 전부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오히려 불합격된 교과서가……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그 보고를 잘못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李在五 委員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우선 언론보도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 부분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저는 사실 金泳三 정부의 공과나 金大中 정부의 공과를 제대로 기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 했든 못 했든 그것은 집필자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것에 대한 검정 입장이 정치적 편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오해 없도록 해 주셔야지, 부총리는 더구나 이 정권하의 청와대비서실장 출신 아니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비서실장 출신이라도 저는 대단히 양심을 갖고……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부총리께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학자적 양심에서 대답하시라는 말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니, 저는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金大中 정권하의 치적을 왜 세우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잘한 것을 잘 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다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와서 이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李在五 委員 다시 한번 봅시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펴낸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泳三 정부에 대해서는 대형금융대출사건인 한보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측근세력과 고위공직자들에 의해 저질러져서……” 이렇게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金大中 정부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욕구와 시민단체활동 속에서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316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형 비리가 金大中 정권 하에서는 최근까지…… 제가 명단은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권력형 비리 연루자들이 대통령 아들과 친인척이 13명, 청와대 비서진들이 12명, 아태재단이

5명,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가 20명으로 50명입니다. 金泳三 정권 하에서는 대통령 아들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薛勳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과서 기술 당시에는 권력형 비리가 안 터졌으니까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정 당시에는 ‘아, 이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런데 저한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왜 그러나 하면 제가 원래……

○李在五 委員 제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언론보도가 오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까는 불합격된 5개 교과서가 더 공정하나 안 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은 중앙교육진흥연구소나 2개의 교과서는 부정적인 것을 안 써놓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李在五 委員 일선 학교의 반응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서울 D고 역사교사 이 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고교 심화선택 과목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의 현대사를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지 金大中 정권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또 서울 C고 역사교사 최 모 씨는 ‘정권친화적인 내용에서는 과거 군사정권과 민주화 이후 교과서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朴正熙 정권이든, 盧泰愚 정권이든, 全斗煥 정권이든, 金泳三 정권이든, 金大中 정권이든, 자기들 잘 했다는 것만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이것이 제대로 된 교과서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안 되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五 委員 그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교과서를 보고 평가했는지 안 보고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교과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부 교사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나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在五 委員 내가 부총리님의 여러 가지 입장은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金泳三 정권은 폄하해서 기술하고 金大中 정권은 과대 기술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따지는 요지는 그 정권의 공과를 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金大中 정권이든, 金泳三 정권이든, 金斗煥 정권이든, 마찬가지로는 말입니다.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전 정권에 대해 공과를 교육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현대교과서가 왜곡되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金大中 정권하에서 기술된 것 전부 없애라, 잘못 됐다, 다시 집필해라…… 이렇게 되풀이된다면 이것이 걸레조각이지 역사교과서입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7차 교육과정만 현 정권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6차, 제5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도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대 정권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李在五 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제 의견인데 그 의견에 부총리도 동의하시는 것이네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지요.

○李在五 委員 그다음 책임문제 좀 봅시다.

교육과정평가원장!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라는 것을 보면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맡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는 것이고 2차적인 책임은 감독을 잘못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부총리가 진다, 이렇게 이 법이 해

석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문해석에 대해서……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 주어진 권한을 따르는 데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李在五 委員 자꾸 그렇게 토를 달지 마시고, 제가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장더러 무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앞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지…… 교육과정평가원 그것 뭐 하러 놔둬니까?

그리고 검정체계를 보면 위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부공문은 좋은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검정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지금 국무총리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것이 체계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보고, 두 번째로 오늘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교육과정평가원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이 교육과정 평가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해야지 교육과정평가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문제가 생기면 업무만 서로 혼란스럽고 책임만 혼란스럽고 공연히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들 간에 서로 좋은 사이에 인간적으로 오해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을 없애고 교육인적자원부 직속으로 교육과정평가실이라든지 평가국이라든지 따로 설치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부총리한테 감독불충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동의합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1차 심사결과 자료만 보았는데 2차 심사결과 자료를 내주시고 이번 이 교과서 부분이 정말 순수하게 집필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집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기술한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요구한 회의록과 심사결과의 모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분석해서 다음 국정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게 하시지요.

○李在五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禎 委員 새천년민주당 李在禎 위원입니다.

먼저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아까 宋永吉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5공, 6공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그 어느 때에도 국정교과서는 역사에 대해 상당히 성실한 기술을 해 놓고 있고 그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기술을 해 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정을 통한 역사교과서 4권 가운데 2권은 현 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교과서의 어떤 점이 왜곡되었는지 특별히 발견한 것이 있으시다면 부총리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객관성의 문제로는 첫째 날조·왜곡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누락이나 축소·과장할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락해도 왜곡은 왜곡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두 교과서에 있는……

○李在禎 委員 아니, 지금 얘기가 역사에 대해 왜곡한 사실이 이 역사교과서 기술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왜곡한 것은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지금 출판사 대표들이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 증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출판사에서 오신 분께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역사교과서 집필자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무슨 압력이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중앙교육진흥연구소회장 허필수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예.

또 한 분?

○大韓教科書株式會社教材事業本部理事 李承在 대한교과서주식회사교재사업본부이사 이승재입니다. 직접 이 사업을 진행시켰던 담당자로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니까 집필자는 회사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위촉한 것이지요?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예, 그렇습니다.

○大韓教科書株式會社教材事業本部理事 李承在 예,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이분들이 역사교과서를 쓰는 동안에 혹시 정부로부터 현재의 역사에 대해서 정부 치적을 좀더 과대하게 해 달라든가 과거 정부에 대한 것을 문제삼아 달라든가 하는 청탁이나 요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大韓教科書株式會社教材事業本部理事 李承在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오늘 공식적인 증인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법적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증인으로 채택하시면 제가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판을 보면 왜곡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두 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것이 언론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교과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 저희

편집자들과 집필자들이 자유의지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당대 정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李在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지요? 그렇다면 잠깐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南景弼 대변인이 성명서에서 “역사 교과서 왜곡은 왕조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제 아무리 후안무치하기로서니 어떻게 감히 나라를 망친 이 정권이 훌륭한 정권을 자처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金貞淑 최고위원은 “초유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사범으로 간주,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국사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제가 그 기사를 아직 못 보았습니다.

○李在禎 委員 역사책을 발간하는 출판사의 대표로서 명예를 걸고라도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요?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만일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존경하는 金貞淑 최고위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권이 역사를 철저히 왜곡해서 역사교과서에 실는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했는데 이번 역사교과서에 두 분이 쓰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해 놓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저희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쓴 것은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는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또 한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大韓教科書株式會社教材事業本部理事 李承在 저희 대한교과서도 없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니까 왜곡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예.

○大韓教科書株式會社教材事業本部理事 李承在 예.

○李在禎 委員 됐습니다. 두 분 앉으시지요.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가운데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 논란 관련 보고’ 해서 ‘작

성과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김만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장이 만든 문서지요? 맞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이 문서가 국민일보 1면에 나와 있는 가판기사를 보고 기록해서 7월 29일 밤에 작성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럴 것입니다. 저한테 보고하려고 한 문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在禎 委員 부총리께서는 7월 29일 밤에 김만곤 과장이 만든 이 관련 보고서를 언제 받아 보셨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7월 30일에 받았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이 문서를 30일에 받아 보시기 전에 교육과정정책과 김만곤 씨가 다른 데에도 배부한 일이 있나요?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내부적으로 아직 보고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 배부는 안 했고 제가 검정업무의 행정적인, 부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초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님은 이 문서를 언제 받아 보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30일……

○李在禎 委員 30일이 확실합니까? 추호도 거짓이 없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런데 여기 원장실의 팩스번호가 3704-3510이 맞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맞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 팩스로 29일 23시 56분 다시 말하면 그날 밤 11시 56분에 한나라당의 교육전문수석위원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렇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지 않습니다. 밤 11시에 저는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

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이것을 누가 전달을 했을

까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게 아마 날짜가 잘못 찍힌 것 같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11시 56분에……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게 아마 낫일 겁니다.

○李在禎 委員 여기에 23시 56분이라는 기계를 조작하지 않는 한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기계가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李在禎 委員 그것은 나중에 검증해 봅시다.

그래 가지고 한나라당 3786-3680 팩스번호로 이것을 보냈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보냈습니다.

○李在禎 委員 교육전문수석위원에게 보내셨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편향 기술한 것이 아니라……

○李在禎 委員 자료 요구를 어느 날 몇 시에 받으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날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고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제가……

○李在禎 委員 이 문제 분명히 합시다. 지금 원장은 한나라당의 교육전문수석위원에게 이 문서를 보내는 것이…… 원장은 한나라당의 직원입니까, 이 정부의 직원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이 업무를 관리한 사람으로서……

○李在禎 委員 질의에 대답만 하시라고요. 한나라당 직원이요, 아니면 정부의 직원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한나라당 직원이 아닙니다.

○李在禎 委員 공무원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공무원은 아닙니다.

○教育人的資源部次官 金信福 정부출연기관 직원입니다.

○李在禎 委員 정부출연기관의 직원이면 공직자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직자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공무원은 아닙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이 문서를 한나라당에 보

내면서, 여기에 본인 스스로 메모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메모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것은 며칠 몇 시에 메모한 것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것 보내기 직전에 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그날 밤에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문서가 한나라당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 날 30일에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서를 다른 데에서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본 겁니다. 정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李在禎 委員 그렇다면 한나라당에 이 문서를 노출시킨 것은 결국 한나라당과 결탁한 무슨 야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禎 委員 없었다면 되었어요.

나는 여기에 분명한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이제까지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오고 심지어 문민정부 시절에까지도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가 별안간에 온 신문과 한나라당이 이토록 이 문제를 가지고 대드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의도와 거기에 깔려 있는 모종의 음모가 없다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 성명서 속에 보면 “金大中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역사교과서 왜곡은 왕조시대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의도가 없이…… 이 문서를 받고 이 문서를 통해서 적어도 이러한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성명서를 통해서 또 온 신문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했다고 공격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7월 30일자 한나라당 南景弼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심지어 이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金泳三 정권은 비리와 대형 사고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 반면 金大中 민주당 정권에 대하여서

는 개혁, 남북화해, 노벨평화상 수상 등을 부각시켜 극과 극으로 대비시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기술되었던 시기가 2001년 언제쯤이었습니까? 아까 회사 사장님, 집필이 완결된 게 언제예요?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이 교과서 집필은 2000년 7월부터 집필해서 2001년 12월 초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 시기는 적어도 7, 8개월 전이 됩니다. 따라서 역산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李在禎 委員 그런데 한나라당이 7월 30일자 ‘대변인 南景弼’ 해서 내놓은 이 문서에 보게 되면 “즉각 검정을 철회하고 내용을 바로 잡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金大中 민주당 정권은 후안무치한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교육전문수석위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음모적으로 이것을 왜곡·확대시킨, 그런 계획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 문제를 적어도 엄중히 다루기 위해서……

교육부총리!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禎 委員 어떻게 직원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광의의 형법적용상 공무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사실 출연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고 또 제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관리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탁사업을 맡겨놓고 위탁사업을 한 책임자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 문서유출에 대해서 김성동 원장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요……

○李在禎 委員 저는 부총리한테 질의했어요, 왜 대답하고 있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게 역시 감독기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의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작년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때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정부 측의 이러한 과오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역사 왜곡도 아니면서 왜곡이라고 비판을 받고, 국민의 정부 치적도 치적이 아닌 것처럼 폄하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평가원장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국무총리실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 보고는 하겠습니다.

○李在禎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민주당의 명예를 걸고, 국민의 정부 명예를 걸고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과 한나라당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음모를 펼쳐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파헤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수능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민의 정부에 대한 어떤 음모가 여기에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명예를 걸고 이번 문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李在五 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李在禎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를 제가 기다렸는데 출판사 직원들은 오늘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까?

위원장, 출판사 직원들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 승인 하에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평가위원장과 교육부총리, 직원들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직원들을 불러 세워서 질의하는 것은 사전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위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진상을 말해 보십시오.

○委員長 尹榮卓 여야 간사에 의해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양대 출판사 사장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李在五 委員 양대 출판사 사장 일어서 보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허필수가 대답하겠습니다. 신문기사에 저희 교과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李在五 委員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제가 자진해서 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사장, 오늘 교육위원회는 원래 10시에 할까, 2시에 할까, 3시에 할까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결정된 것이 4시에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래 교육위원회는 어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中央教育振興研究所會長 許必秀 저희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우리가 국정감사에 가면 자연스럽게 4개 출판사 사장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은 부르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양쪽 간사와 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일어서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국정감사 때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李在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이 팩스번호 3786-3680으로 온 것 맞습니까?

○李在禎 委員 예, 맞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 위에 보면 2001년 1월 3일 23시 5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李在禎 委員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에 것은 안 나와 있고 01-0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3시 56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01-03 앞에 2001년 01-0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2001년 1월 3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네요?

○李在禎 委員 이 문서는 2002년 7월 30일자 것인데……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01부터 03이라는 것은 팩시밀리를 통해서 온 3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앞에 2001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작성자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논란 관련 보고’ 작성과는 교육과정정책과 과장 김만곤, 작성자는 연구사 구란희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명은 국민일보 1면과 3면, 보도일시는 2002년 7월 30일자, 보도제목은 ‘김영삼 비리정권 김대중 개혁정권’, 주요내용은 고교 2·3학년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일부 내용 중 전현직 대통령 대조적 평가 객관성 시비 우려 보도경위와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추진 경위, 우리 부의 향후조치 계획 등을 담은 교육부가 작성한 팩스문건입니다. 이것 맞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맞습니다.

○李在五 委員 여기 보면 ‘교육부가 앞으로 향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향후 조치계획도 ‘최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설명을 중심으로 직권 수정지시 과정을 거친 후 배부하도록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작성내용이 맞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김만곤 과장 왔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이것 작성한 것 맞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맞습니다.

○李在五 委員 연구사 구란희 씨 왔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李基雨 여기 안 왔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러면 이것 작성한 것 맞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五 委員 이것은 교육부가 작성한 것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예.



○李在五 委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아닙니다.

○李在五 委員 교육부가 작성해서 교육평가원에 보냈는데……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보내지는 않았습시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部長 金正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서검정팀장 김정호입니다.

제가 29일 오후 연구실에 있었는데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9시쯤 제가 교육부를 갔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과 구난희 연구사 등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는데 저 보고서를 작성 하였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1시가 다 되었는데, 그 전에 저는 그 신문기사를 보고 9시쯤 원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은 맥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맥에 계실 때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와서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1시쯤에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니까 저한테도 한 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연구소로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다음날 아침에 와서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李在五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이 문건의 작성은 김만곤 과장 책임하에 연구사 구난희 씨가 한 것이 맞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教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李在五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한 것이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教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李在五 委員 이상입니다.

○薛勳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黃祐呂 委員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까?

○薛勳 委員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대한 조사위원회

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밤 11시 30분경에 친절하게 야당 의원에게 팩스를 보내 주었다는 얘기도 이해할 수 없고 또 李在禎 위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면 국회 전체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형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李在五 委員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교육위원회에서 만들든지 국회 전체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 부분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 黃祐呂 위원님 말씀하세요.

○黃祐呂 委員 우리 교육위원회는 여야가 없이 특별히 정치중립적이고 정략적인 것을 피해야 되는 교육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계속해서 여야의 대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의 바람직한 관행과 달리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참조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나라당은 언론에 이래라저래라 한 적도 없고 또 본 위원 자신이 김성동 평가원장을 그동안 몹시 추궁해 왔기 때문에 김성동 평가원장과 사전에 어떤 모의를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명예뿐만 아니라 평가원의 명예와 교육위원회의 명예가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달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논의는 달을 얘기하지 않고 손가락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역사교과서가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 괜찮으나……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소란해지고 온 언론이 이렇게 야단을 하는 것이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과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도 교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정권에도 비리가 많았는데 현 정권에 비리가 많다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말을 하느냐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

니까? 과거 정권에 비리가 많았으면 그것도 잘못이고 현 정권에도 비리가 많다면 다시 한번 소란해지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재정권을 극복하고 교과서 편찬체제를 개선해서 검인정 과정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겠지 하고 모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국정교과서와 같은 취지로, 예전의 잘못된 방식 그대로…… 중립적이고 순수한 민간업자와 양식이 있는 민간학자들이 만드는 교과서가 이 모양이나, 여기에 국민들이 흥분하고 언론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건 때문에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보도 때문에 아침에 교육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한 끝에 이것은 발언을 하자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가 언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오늘 회의를 2시에서 4시로 연기하면서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薛勳 위원이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서 모든 정치적인 음모가 있으면 다 밝히자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논의는 정치적인 음모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교과서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하고 만에 하나 어떠한 정치적인 연관이 있다면 차제에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자신도 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좀 건진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알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의결정족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黃祐呂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독재정권에서는 그야말로 교과서도 왜곡하고 모든 것을 왜곡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그야말로 개혁정부라고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독재정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黃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편찬체제를 새로 신설해서 이제 참다운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두 사람의 문제 의식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제대로 조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朴昌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昌達 委員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오늘 제2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저는 오늘 회의의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몇 분의 이야기 중에 3공이 나왔고 5공이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독재정권이 나와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발단은 무엇이나, 교과서라는 것은 성인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이 보는 책입니다. 앞으로 교육에 필요한, 가치관을 심어 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일부 항목 중에 학생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서 그것을 게재했느냐, 모든 언론이 여야에 대해 싸움을 붙이기 위해 게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하고 받을 또 뺏니다. 현재 원장께서는 검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시다면 거기에서 모든 검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께서 안 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희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집계한 성적표만 봅니다.

○朴昌達 委員 그런데 일단은 위원장이 아닙니까? 위원장이면 다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책임은 위탁을 받았으니까 평가원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라는 책무가 보통의 책무가 아닙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모든 관리와 책임을 다 져야 할 자리입니다.

어제 張裳 총리후보자가 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까? 문제는 본인의 책임을 너무 회피해 버리

고 자꾸 옆길로 가다 보니까 모든 동료의원들이 부표를 준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차적인 책임짚은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김성동 원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李在禎 위원께서 조금 전에 출판사 대표들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서툰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李在禎 위원하고 출판사 사장하고 말을 짜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묻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왜 묻습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 대표들 다 부르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질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간사 간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야 간사 간에 앞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단 한 가지 만약의 경우 부총리께서 모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다시 수정하실 때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회의 이후에 저는 존경하는 李在禎 간사하고 특위문제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薛勳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薛勳 委員 김성동 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논란 관련보고, 과장 김만곤, 작성자 연구사 구란희” 이 보고서를 어디에 보내 주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한나라당의 김주철 수석전문위원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국민일보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 문건을 30일 아침 제가 출근하자 우리 김정호 팀장께서 저에게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옳구나…… 그 내용에 보면 국민일보에 나온……

○薛勳 委員 잠깐만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

세요.

교육전문수석위원한테 보낸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30일 오전인가 오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薛勳 委員 오전인가 오후인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직접 보냈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밑에 직원을 시켜서……

○薛勳 委員 직원 누구한테 시켰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비서를 시켜서……

○薛勳 委員 비서 누구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김도균입니다.

○薛勳 委員 김도균에게 몇 시에 시켰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오전 11시 가까이 되었는가 그럴 것입니다.

○薛勳 委員 누구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 위에 팩스번호 적힌 데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李在禎 委員 자료를 달라는 요청전화는 언제 받았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 직전에 한 10시 반이나 그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李在禎 委員 밤 10시 반에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닙니다. 아침 10시 반에요.

○李在禎 委員 아침 10시 반에 교육전문수석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니지요. 이것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교육부도 잘못된 것이 없고 우리도 잘못된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기술할 때나 집필상 유의점에도 편향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교육부가 잘못했다든지 정부가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참고해서 보라고……

○薛勳 委員 알았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심의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메모한 이것도 원장이 직접 한 것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제가 했습니다.

○薛勳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팩스넘버에 23시 5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는 밤 23시 56분으로 보이는데 만약 지금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형사구속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 金貞淑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金貞淑 委員**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지금 역사가 왜곡이냐 또 아니다, 이것 가지고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총리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떤 때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균형을 잃고 답변을 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분명히 아까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누락시켜서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잘못 기술해서 생기는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읽어 보면 첫째는 존경하는 李在五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金泳三 정부의 업적하고 金大中 현 정부의 업적하고 볼 때, 사진도 金泳三 정부 것은 부정적인 사진만 게재하고 金大中 정부의 것은 아주 좋은 사진만 게재했습니다. 마치 金大中 정부의 홍보물같이 보여요. 그리고 내용도 양도 많고 부정적인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왜곡이 아닙니까? 만약 이대로 채택이 된다면 역사적인 왜곡이 아니겠어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검토팀에 맡겨서 검토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이것이 1차, 2차 심사 걸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이것이 언론에서 또 교육위에서, 한나라당에서 지적되어서 이제는 뭔가 수정·보완이 있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도 뭐가 잘못 기술되었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고 저쪽 민주당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었어요. 또 그 정권이 좀 강하게 독재를 했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의 더럽혀진 정치역사가 또 불우했던 정치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새 광명을 찾자는 국민의 정부니 민주당 정부니 하면서 그것을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사고방식이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는데 여러 가지 뜻이 모아져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의 집필과정에서 생기는 이 문제는 역사왜곡의 시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심사를 검정위원들에게 위임을 했으면 거기서 내용도 다 보게 해 줘야지 거기다 위임한다는 규정만 만들어 놓고 내용에 관여하고 모든 부분을 다 교육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계속 문제가 불거지니까 모든 권한은 거기에 다 있다, 거기서 다 했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왜곡의 음모가 짙게 깔려 있다는 심증을 굳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어느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갑자기 오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의혹을 부풀리지 않겠어요. 부총리는 바로 현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또 한완상 전 총리가 이 사람들을 전부 지명했어요. 그리고 1, 2차 심사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었어요. 지금 95% 이상 99%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까지 올 동안 아무 소리도 않고 진행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왜곡의 의도가 있고……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貞淑 委員**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 말 좀 들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저쪽 당 위원님들께서 형평성이 있다고 물으셨어요. “형평성이 깨졌느냐, 편잡냐, 균형 감각이 있게 저술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부총리께서 “형평성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당 쪽에서 질의할 때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볼 때 형평성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저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갖추었고 두 가지는 좀 덜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金貞淑 委員** 두 가지의 교과서도 분석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질의에서 이 내용을 깊이 안 들어간 것은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서예요. 그리고 내용을 살살이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동안의 절차나, 사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편수과가 국으로 되어야 된다는지 교육과정평가원의 기능을 어떻게 바꾸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부풀리는 것이예요.

그러면 내용을 보자고요. 이것은 분명히 역사 왜곡의 기도가 들어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이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저께 金貞淑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청와대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부총리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속에 있던 야심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취소해 주실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金貞淑 委員 그것은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 볼 일이에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이것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金貞淑 委員 현재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혹을 받고도 남아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제가 여기에 개입한 뭐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禎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在禎 委員 김성동 원장, 이 문서를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김정호 팀장한테 받았습시다.

○李在禎 委員 김정호 팀장은 누구한테 이것을 받으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있다가 돌아올 때 요청을 해서 가지고 왔습시다.

○李在禎 委員 몇 시에 가서서 요청을 하셨나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교육인적자원부에 간 것이 9시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李在禎 委員 아침 9시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밤

입니다. 아침에는 보도된 기사로……

○李在禎 委員 밤 9시에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서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편수관님들이 이것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11시경쯤이었을 것입니다. 나올 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돼서 필요하니까 한 부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집으로 갔습시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분명히 29일 밤 11시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다음날 아침 몇 시에 이것을 원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시다마는 아침 일찍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李在禎 委員 이것을 전달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이 여기 계십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교육과정정책과장 김만곤입니다.

○李在禎 委員 맞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李在禎 委員 저분이 오셔서 달라고 그래서 밤 9시경에 이것을 드린 것이예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밤 9시경이 아니고 11시경입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제가 간 것이 9시경입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과장은 누구한테 보고하려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저희 직속상관인 실장님께 보고드리고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부총리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李在禎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는 몇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실장님께 이튿날 아침 일찍 보고드렸습시다.

○李在禎 委員 실장한테 보고도 드리지 않고 이 공식문건을 평가원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그것은 저희가 평가원에 검정업무를 위탁

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업무는 같이 걱정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요청을 하기에……

○李在禎 委員 아니, 원장은 공무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부총리께서 보시지도 않았고 실장도 보기 전에 과장이 임의로 이것을 노출시켜요? 잘못했지요?

○教育人的資源部學校政策室教育課程政策課長 金滿坤 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출이라고는 생각 못 하고 우리가 검정업무를 위탁했으니까 제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했습니다.

○李在禎 委員 원장은 이 문건이 부총리에게 보고되는 문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어떤 것이 나오면……

○李在禎 委員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이것이 대외비도 아니고 비밀내용도 아니고 아주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李在禎 委員 아니, 부총리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에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때는 몰랐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나온 문건이라는 것은 아셨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것은 김정호 팀장이 가서 같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在禎 委員 두 분이 같이 만드셨다고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제가 가서 있다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만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李在禎 委員 원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같이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教科書檢定팀長 金正浩 물론 작성하는 과정에서……

○李在禎 委員 됐어요. 원장,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김도균에게 지시를 해서 한나라당 교육전문수석위원에게 전달할 때 의도는 무엇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교육전문수석위

원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났느냐” 해서…… 그런데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저희가 편향적인 기술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직권수정의 기회도 있고 이것이 비밀도 아니고 해서 우리 입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해명하는 자료로 보냈습니다.

○李在禎 委員 그러면 평소에도 한나라당 교육전문수석위원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보내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미 신문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李在禎 委員 왜 원장이 해명을 해요? 아까 말씀으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해명할 생각을 가지십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에 지시된 대로 관리 및 지원업무를 했습니다.

○李在禎 委員 이것 보세요. ‘평가원의 아무도 참여 못함’ 이렇게 여기에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예, 교과용도서 심의회에는 아무도 참여 못합니다.

○李在禎 委員 이 문제는 후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李在五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李在五 委員 지금 존경하는 李在禎 위원님께서 이 문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마치 한나라당과 평가원이 무슨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야말로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총리, 제가 한나라당 위원인데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당하고 짜고 金大中 정권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일이 없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렇지요.

○李在五 委員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문건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이 해명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보낸 것인데 이것을 먼저 보내고 늦게 보내고, 누구에게 보낸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평

가원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거꾸로 오늘 출판사 사장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민주당 李在禎 위원이 그 사람들이 온 것을 알고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하고 출판사가 짜고 교과서를 이렇게 왜곡시키느냐’ 이렇게 물으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민주당이 출판사와 짜고 역사를 왜곡하도록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억지를 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판사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출판사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민주당 사주를 받아서 金大中 정권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당신네들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도 안하고 우리 당 위원들은 출판사 사장이 온 것도 모르는데 민주당 위원들이 출판사 사장을 일으켜 세워서 질의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

내가 국회의원의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나라당 당원의 입장에만 충실하자면 ‘당신네들이 민주당하고 짜고 우리도 몰래 증인으로 와 가지고 서로 질의답변을 주고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회의원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육전문수석위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문건을 가지고 한나라당하고 평가원이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교육위원의 품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래도 평가원이 정부기관인데 이것은 정부기관에 대한 모욕이고 또 한나라당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하시든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총리, 지금 1차 심사결과의 수정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 일련번호 18, 45쪽 11 내용에서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보면 “오호라”를 ‘슬프다’로 수정하라’ 또 48쪽의 ‘최익현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해라’ (최익현이 체포된 모습을 넣어라), 그다음 49쪽 자료 3을 보면 ‘「개화반대운동을 주장하는」을 「개화를 반대한」으로 수정해라’ 이렇게 아주 검정을 잘 해서 문구 하나, 사진 하나까지 교체지시

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 하나 문구 하나까지 수정·보완을 지시하는 심사위원들이 언론에 제기된 ‘편향된 시각이다’, ‘양 정권의 비교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꼈습니까? ‘오호라’를 ‘슬프다’로 고치라고 문구 하나까지 수정지시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임기도 끝나지 않은 정권을 기초로 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그것은 제가 검정위원이 아니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마흔 몇 권의 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근·현대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신문에 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李在五 委員 알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당대의 이야기는 그 정권하에서는 기술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것으로 부총리와 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9종의 교과서를 전부 재심사하고 심사위원도 다시 선정하십시오. 그래야 탈락된 교과서가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합격된 출판사들은 양해를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薛勳 위원 말씀하세요.

○薛勳 委員 이 교과서 문제는 얘기가 안 될 것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보니까 金貞淑 위원이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핵심이 함께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일파만파로 파장이 커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부총리께서는 이것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물며 청와대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것이 무슨 권력의 음모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언론이 이것을 보도해서 파장이 커졌던 것입니다. 내용은 보시다시피 별 것 아닙니다.

○黃祐呂 委員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말이 좀 얽히고설킨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

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선실록 얘기 또 사또가 자기 임기 중에는 공덕비를 못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아까 심사위원들이 ‘오호라’를 ‘슬프다’로 바꾸라고까지 세세히 문구 하나 하나를 점을 찍어서 교정하라고 심사를 했다면 그분들이 역사를 어떻게 쓰고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다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분이라면 심사위원들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언론이나 존경하는 金貞淑 위원이 말씀한 것은 국민의 뱃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옛날 정권이 했듯이 현 정권이 또 건드린 것 아니냐, 겉으로는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 놓고 뒤로는 마찬가지로 아니냐, 선거 앞두고 무슨 짓이냐’,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도 벌써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유감 발표를 했고 또 교육부총리께서도 오늘은 여러 말씀을 하시지만 기자회견에서 자세하게 조치할 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균형 없는 기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이 착잡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국정교과서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또 ‘검인정이라고 기대해 봤더니 왜 이 모양이냐’ ‘더 큰일 나겠다’ 등 지적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안교과서도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교과서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지, 이것이 교과서냐,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우리 평가원이 무책임의 블랙홀이에요. 거기만 가면 문제가 나도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따져볼 사람도 없고, 책임을 추궁할 사람도 없다면 이 조직은 잘못되었다, 여기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곡교과서 때문에 일본에 가서 데모도 하고 별 짓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교과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총리께서 단호하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정기준과 한국 근·현대사 집필상의 유의점’이라는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표지가 없어서 이것이 언제 제정된 것인지 몰라 여쭙어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사회의 시에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떤 식으로 고지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장!

이 문서를 특정문서로 한나라당의 교육전문수석위원이 요구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까 해명하는 차원에서 ‘아, 이것 좋은 문서가 있구나, 이것을 보내 버리자. 그러면 야당도 더 덤비지 않고 알아볼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습니다.

○黃祐呂 委員 아니면 전문수석위원과 평소에 내통을 해 가지고 무슨 문서만 나오면 팩스로 밤 11시 56분에 보내주고 하는 이런 사이입니까?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그렇지는 않습니다.

○黃祐呂 委員 그리고 여기에 2001년 1월 3일 23시 56분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것은 기계고장이지요?

○韓國教育課程評價院長 金成東 아마 기계가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黃祐呂 委員 우리가 이 문서를 잘못 받은 것 같아요. 2001년 1월 3일이면 거의 1년 8개월 전에 받은 문서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말씀을 부총리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우선 합격된 교과서도 수정·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 검토를 해서 수정·보완시키고 그다음에 탈락된 교과서에도 재심기회를 주겠습니다. 9월까지 기회를 드려서 다시 검토하고……

이것은 어떤 권 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다 합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된 것을 없애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다음에 역사교과서의 공정한 기술을 위해서 제도



적 개선도 병행을 하게 하고 또 이번에 여기에서 드러났듯이 조직의 문제도 있습니다. 검정위원회다, 교육과정평가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다,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문제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은 제가 재직하기 이전의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일차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명칭은 역사교과서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각 교섭단체별로 하고 기타사항도 추후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해서 이 문제는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야 간사의 합의 여하에 따라서 논란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마 그대로 정리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李揆澤 위원님, 權哲賢 위원님, 黃祐呂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의 상호 책임 전가성 발언은 아주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이 정부에 있어서 확실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玄勝一 黃祐呂

○請暇委員(2人)

田溶鶴 鄭夢準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尙元鍾  
전문위원 鄭順泳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李相周  
차관 金信福  
기획관리실장 李基雨  
학교정책실장 李相甲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과장 金滿坤  
학교정책기획팀장 李英萬

○其他參席者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金成東  
기획조정실장 李寅濟  
교과서검정팀장 金正浩  
교과서검정지원부장 金昌煥  
중앙교육진흥연구소장 許必秀  
대한교과서주식회사교재사업본부이사 李承在

【報告事項】

○常任委員辭任및補任

委員名	辭任委員會	補任委員會	交渉團體
金敬天	教 育	財政經濟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教 育	政 務	새천년민주당
趙在煥	政 務	教 育	새천년민주당
宋永吉	財政經濟	教 育	새천년민주당

(8월1일자)

○出席委員(14人)

權哲賢 金貞淑 朴昌達 薛勳  
宋永吉 尹榮卓 李揆澤 李美卿  
李在五 李在禎 趙富英 趙在煥